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부활 제6주일

제2196호

2024년 5월 5일(나해)



오늘의 미사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

▶ 입당송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
내셨네.

▶ 제1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제2독서: 요한 1서 4,7-10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
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5,9-17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 수, 금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
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5월 봉성체 안내

5월 봉성체는 5월 16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05월 05일(일)	오후 4시
05월 12일(일)	오후 4시
05월 19일(일)	미사 없음
05월 26일(일)	오후 4시
06월 02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성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희란 리옹 미카엘라 자매님



팔라마수퍼
PALAMA SUPER MARKET

팔라마 상품권 판매

상품권(\$50, \$100)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성당에 10% Money Back 혜택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판매 중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5월05일(일)	4 복음서 강의, 제 9강 1부
5월12일(일)	4 복음서 강의, 제 9강 2부

-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2) 자모회에서 공지합니다.

5월 12일 "Mother's Day"를 맞이하여 자모회에서 모든 미사 후 음료와 떡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 故고순빈(로사)자매님 자매님께서 4월 11일 향년 90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따님 조원임(아가다),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장인 사위 조데이빗(빈첸시오)형제님이 계십니다. 고인의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와 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미사	5월 22일(수) 10시 30분/ 성당
연도	오전 9시 30분

※ 5월 19일 교중미사 후 연령회 모임에 연도가 있습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1)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5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2)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5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3)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5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5월 11일 /12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4월27/28):\$5,198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2,744.41	\$2,200	\$254

■ 성모 성월

교회가 5월을 성모성월로 확정한 것은 1921년 교황 베네딕도 15세가 성모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 선포하면서 5월을 성모성월로 공식 인준 한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현재와 비슷한 성모공경 예절은 이미 16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유럽 각지로 퍼져 나갔고 역대 교황들은 성모성월 신심을 잘 지켜 가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성모성월 신심을 위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전례 예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 단지 말씀의 전례 양식을 빌린 「성모의 밤」 행사나 성모님께 바치는 여러 가지 기도, 본당이나 단체별로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성모마리아를 공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가 구세사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와 하느님께 순명한 신앙의 모범을 신자들이 따르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루가 1, 38) 라고 했던 마리아의 자유스런 응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행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우리는 성모님의 고통과 순명의 삶을 자신의 삶 안에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출처: 가톨릭 신문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성녀 김임이 데레사

성인명	김임이 데레사 (金任伊 Teresa)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811-1846년

성녀 김임이 테레사(Teresia, 또는 데레사)는 서울 관우물골의 어느 신자 집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테레사는 열심히 계명을 지켰으며, 성인전 읽기를 좋아하고 그 덕행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그녀는 이미 일곱 살 때에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에만 전념하였다. 그녀는 여 교우들이 임종할 때에 선종하도록 도와주고, 죽은 후에는 장사 지내는 일과 그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직분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활함으로써 테레사의 집안과 친한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한 그녀는 몸을 피하기 위하여 왕비궁의 침모로 들어가 3년 동안 살았다.

그 후 궁궐에서 나와 20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동안 오빠인 김 베드로(Petrus)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그 뒤에는 친척이나 혹은 친지의 집을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특히 이문우 요한(Joannes)의 양모 집에 가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1844년 테레사는 김대건 신부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다. 1839년부터 1841년까지 박해를 체험한

신자들은 새로운 박해가 일어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불안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였으나, 그녀는 오히려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언제고 신부님이 잡히시면 나는 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부님의 뒤를 따르테니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말라.”잡히기 전날 테레사가 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동생이 밤을 지내고 가라고 붙들자 테레사는 “안 된다. 현 카롤루스(Carolus) 회장님과 여러 교우들이 새 집에 바로 오늘 밤에 모여서 일을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꼭 가보아야 한다.” 하며 돌아갔다. 이리하여 그날 밤, 테레사는 현 카롤루스의 집에서 다른 여신자들과 잡혀 온갖 고문을 받았다.

옥중에서도 그녀는 가장 용감하였고 같이 있던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그러던 중 테레사는 혹독한 매질을 이기지 못하여 순교하니, 때는 1846년 9월 20일이요 그녀의 나이는 36세였다. 그녀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봉헌

4월 28일까지 묵주기도 봉헌은
총 511,355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

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만나
Tel:(808)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 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